

4월 FAO 세계식량가격지수 165.5p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전월보다 3.4% ↓... 곡물은 안정, 육류·유제품·유지류·설탕 등은 하락

WHO의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유행, pandemic) 선언 상황 속에서, 세계 곡물 가격은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육류·유제품·유지류·설탕 등의 가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0년 4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71.3포인트) 대비 3.4% 하락한 165.5포인트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산·유통에 장애가 있었으나, 세계식량가격지수는 3개월 연속 하락해 2019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품목군별로 보면 곡물 가격은 안정적인 수준이며, 육류·유제품·유지류·설탕 가격은 하락했다.

주요 곡물 중 밀과 쌀 가격은 상승했고 옥수수 가격은 하락하여 전반적인 곡물가격지수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밀 가격은 전월 대비 2.5% 상승하였는데, 이는 국제 수요가 존재함에도 러시아가 곡물 수출 할당량(쿼터) 소진에 따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이외 국가에 대한 수출을 중단하였기 때문이다.

쌀 가격은 일부 국가의 임시 수출제한 및 물류장애로 인해 전월 대비 7.2% 상승했다. 다만, 베트남이 4월말 수출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철폐해 추가적인 상승은 없었다.

한편, 옥수수 가격은 3개월 연속 하락해 이에 따른 잡곡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10% 하락했다. 사료 및 바이오 에탄올 수요가 감소하고 남미의 신규 수확 물량이 추가돼 공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하락 품목군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육류 가공이 감소했으나 경제불황, 물류장애 및 봉쇄

로 인한 외식분야 수요 감소로 재고 및 수출 공급량이 증가했다. 중국의 수입 수요가 소폭 회복했으나 다른 국가들의 수입 수요 하락을 상쇄하기에는 불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버터, 탈지분유 및 전지분유 가격은 수입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재고 및 수출공급량이 증가해 10% 하락했다. 북반구에서는 매년 이 시기에 우유 생산량이 증가하는데, 식품·외식업계의 수요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치즈 가격은 완만히 반등했는데, 오세아니아의 생산량이 계절적 요인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팜유 가격은 원유(crude oil)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따라 계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팜유 생산량이 예상보다 많았던 점 또한 가격 하락에 기여

했다. 대두유 및 유채씨유 가격 또한 수요 부진으로 하락했으며, 미국 내 대두 분쇄량이 예상치를 상회한 것도 대두유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해바라기씨유 가격은 수출가용량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우려해 수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반등했다. 원유 등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 설탕공장이 바이오 에탄올(사탕수수 원료) 대신 설탕 생산을 늘림에 따라 설탕 수출공급량이 증가한 반면, 설탕 수요는 감소해 가격이 하락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는 '2019/2020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720.1백만톤으로 2018/19년도 대비 2.5%(65.3백만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19/2020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2,696.8백만톤으로 2018/19년도 대비 0.4%(10.0백만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9/2020년도 세계 곡물 기말 재고량은 883.7백만톤으로 2018/19년도 대비 1.6%(13.5백만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윤상 기자

김영배 부귀농협 조합장 당선

보궐선거서 388표로 2위 박명석 후보 5표 차로 제치

조합원 위한 종합병원 치료비 할인혜택 등 내세워

12일 진안부귀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김영배(59) 후보가 부귀농협 신임 조합장에 당선됐다.



5명이 출마한 부귀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 신임조합장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조합원 1502명 중 1271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388표를 얻어, 383표를 얻은 박명석 전 진안군의회회장을 5표 차로 제치고 조합원들의 신임을 얻어 당선

의 영예를 안았다. 부귀농협은 지난 2003년 정천농협과 합병, 선거구가 부귀·정천

2개면으로 부귀면 조합원은 1,064명, 정천면은 438명으로 이번 선거는 정천읍 전 조합장이 지난 4.15 진안군수 재선거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사퇴함에 따라 공식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김 신임조합장은 부귀농협 이사, 감사를 역임한 농협 실무에 밝고 조합원을 위한 종합병원 치료비 할인혜택 추진과 안정적 농산물 판로 개척에 대한 강한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워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한편 함께 출마한 주명환 후보는 54표, 최홍만 후보 135표, 천춘진 후보 305표를 얻었고 무표 6표의 득표 현황을 보였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현대모터스

K리그 우승 기원

전북은행, JB최강전북

축구사랑 통장·예금 출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웅택)은 오늘부터 국내 프로축구 최강팀인 전북현대모터스 FC 우승기원 패키지 상품인 'JB 최강전북 축구사랑 통장'과 'JB 최강전북 축구사랑 예금'을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북현대모터스 FC 우승기원 패키지 상품은 지난해 K리그 3연승에 성공했던 전북현대모터스 FC의 4연승을 기원하는 축구팬들의 응원을 담아 출시한 상품이다.

JB 최강전북 축구사랑 통장은 예금, 펀드, 저축, 카드실적에 따라 전자금융수수료 등 총 4종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하는 요구형 상품이며, 'JB 최강전북 축구사랑 예금'은 전북현대모터스 FC 시즌성과 거대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1년제 정기예금 상품으로 8월말까지 2,000억원 한도로 판매한다.

예금 가입한도는 최저 1백만원 이상 최대 1억원 이내로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으며, 예금금리는 기본금리 0.95%에 우대금리 연 0.70%를 가산하여 최고 연 1.65%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오늘부터 국내 프로축구 최강팀인 전북현대모터스 FC 우승기원 패키지 상품인 'JB 최강전북 축구사랑 통장'과 'JB 최강전북 축구사랑 예금'을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우대금리는 2020시즌에 전북현대모터스 FC가 K리그 우승시 연 0.20%, FA컵 우승시 연 0.20%, K리그 16승 이상시 연 0.10%를 제공하며, 비대면 가입 및 JB 최강전북 축구사랑 통장 보유시 각각 연 0.10%를 제공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으로 무기한 연기됐던 2020시즌 프로 축구 개막을 기다리던 전북현대 FC 축구팬들의 응원 분위기 조성 및 전북현대 FC 4연승 성공을 위해 상품 출시했으며, 예금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543명에게 전북현대 FC 응원 패키지, 유니폼, 사인볼 등을 제공하는 경품 이벤트도 진행 한

다"고 전했다.

이 상품은 전북은행 영업점 및 스마트폰, 모바일Web을 통하여 고객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상품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jbbank.co.kr) 또는 고객센터(1588-447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고품질 쌀 생산 '제때 모내기해야'

농진청, "지역별 적정 시기에... 호남평야 내달 16일 적기"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밥맛 좋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지역별 적정 시기에 모내기 작업을 실시할 것을 12일 당부했다.

우리나라 지역별 모내기 적기는 현재 기후 조건에서 추정할 때 조생종의 경우 △중부 중간지는 5월 21일에서 27일 △호남 중간지는 6월 5일에서 11일 △영남 중간지는 5월 28일에서 6월 4일이다. 중만생종의 경우 △중부 평야지는 5월 20일에서 6월 14일 △호남 평야지는 6월 4일에서 18일 △영남 평야지는 6월 1일에서 20일이다.

자세한 지역별 모내기 적기는 거주 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명규 농촌진흥청 작물재배생리과장은 "쌀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밥맛 좋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기 모내기가 중요하다. 제때에 모내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온기에 벼가 익으면 호흡량이 늘어나 전분합성량이 줄어들고 깨진 쌀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량이 떨어지고 투명 쌀의 비율이 낮아진다.

/김윤상 기자

중기 10곳 중 9곳 "전기요금 수준 부담"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94%가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체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중소기업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전기요금 체제개편과 관련해 경부하 요금 인상시에는 90.0%의 중소기업이 요금 수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최근 1년 동안 경부하 시간 대 조업 등을 경험한 기업 비중은 76.3%로 나타났다.

경부하요금 인상에 따른 주요 애로 사항으로는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94.7%)를 꼽았으며, '경부하시간대 조업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량 감소'(5.3%)가 그 뒤를 이었다.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신설'(31.7%), '중간·최대부하 요금 인하'(24.3%), '8월, 11월에 봄·가을철 요금 적용'(22.0%) 등을 응답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통해 생산원가 상승 압력이 해소되길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복수응답)으로는 △불필요한 설비운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

영 최소화(86.3%) △노후·저효율 시설 교체(31.3%) △에너지저장장치(ESS)도입(4.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비용 절감 시 주요 애로사항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 추세 지속'(62.0%), '설비 특성상 24시간 가동 불가'(10.3%), '예측 불가능한 거래처 발주패턴'(9.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정부 지원사업에는 91.7%가 참여한 경험이 없으며, 가장 큰 이유는 '지원 정책이 있는지 몰라서(또는 늦게 알아서)'(41.8%)로 조사됐다. 정부에 바라는 정책은 '중소제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88.7%), '지원사업 정보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및 교육 강화'(5.0%), '고효율 기기 도입자금 지원 확대'(4.7%) 순으로 나타났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내수부진, 각종 경제성장 둔화 우려로 중소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까지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전력산업기반금 부담금을 현재 창업 제조업에 한해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김용범 기재차관 "한국판 뉴딜 디지털 포용정책 고민해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한국판 뉴딜과 관련 "사람 투자, 디지털 포용정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디지털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디지털 전환 시 자동차·무인화 등으로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연과 산업 분야의 다양한 종류의 일자리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이라며 "높은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성이 요구되는 양질의 일자리는 물론 노동집약적 작업이 요구되는 일자리 창출 가능성도 높아 디지털 경제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은 막대하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또 "대·중소 기업간, 개인간 디지털 격차 완화, 사각지대 해소 등 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3대 프로젝트별 팀을 구성, 민간 전문가와 기업 등 현장의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적극 반영키로 했다. /뉴시스



국제식품박람회 한국관 전경.

파리·멜버른 박람회 한국관 참가 지원

aT, 하반기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업체 모집... 21일까지 온라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2020년도 하반기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업체를 오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모집한다.

국가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박람회 개최가 유동적일 수 있으나, 하반기 정상개회 일정에 맞춰 호주 멜버른(Fire Food Australia, 9월), 프랑스 파리(Sial Paris, 10월), 베트남 호치민(Foodexpo Vietnam, 11월) 등 총 8회 박람회의 통합 한국관 참가업체를 모집한다.

참가대상은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이 가능한 생산업체 또는 수출업체로, 최대 3개 박람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선정된 업체는 통합한국관 내 1개 부스를 무상 지원받는다. 또한 신선농산물에 한해 3백만 원 한도로 운송통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또한 aT가 참가하지 않는 국제식품 박람회에 농식품 수출기업의 개별적 참가를 지원하는 '개발박람회' 참가업체도 이번 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선정된 업체는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지원항목에 따라 실소요 비용을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에 따른 비대면 홍보채널 마련을 위해 박람회 참가업체들에게는 온라인 상품소개 페이지를 신규 제작하여, 아그로트레이드(agrotrade.net)를 통해 상시적인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aT 신유통채널사업부(061-931-0985/0987)로 연락하면 된다.